



칭찬하고 응원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은 생활의 활력소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릴레이' 코너를 마련합니다. <편집자주>

푸른신문에서는
주민여러분의 따뜻한 칭찬과 응원, 미담사례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푸른신문 '칭찬하고 응원해요'란에 들어갈
가족 또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힘이 되는 메시지와 사진을 함께 보내 주시면
예쁘게 편집해서 실어드립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하고 응원해요'는
계속됩니다.

*접수는 이메일 pr5726000@naver.com로 보내주세요.



푸른방송 기술자재팀 김범실 사원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기술 자재팀에서 근무하시며 푸른방송 자재, 장비 등을 정리, 관리, 입출고를 해주시는 김
범실 사원을 칭찬합니다.

늘 묵묵히 맡은 업무를 성실히 해주시며 장비 입출고 부분과
정리 부문을 늘 잘 해주셔서 쉽게 장비를 찾아 고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고객들이 장비를 받았을 때 늘 새것처럼 깨끗하게 받을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덕분에 푸른방송과 고객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며칠 폭염으로 다들 고생하는데 남은 여름도 다 같이 힘내
봅시다. 파이팅!

<칭찬하는 사람: 강상모>



거짓 없이 솔직한 서현주 언니~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언니 이름 부르자마자 미소가 번지네. 꾸밈없는 언니는 항상 날 깜짝 놀라게 해.
좋은 일어든 안 좋은 일어든 직설적으로 바로 말해서 섭섭할 때도 있지만…
거짓 없는 솔직한 감정 표현에 감탄스러워. 난 잘 안돼서.ㅠㅠ
그래도 어려운 일 있을 땐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언니는 우리 모임에서 최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 모임 떠나지 않고 남아줘서 고마워!
계속 있어 줄 거지?
언니~ 우리 오래오래 모임 갖자.

<칭찬하는 사람: 이도영>

다사논메기매운탕

달성군 다시읍 달구벌대로 115길 32
문의 053-585-6036

‘논메기 매운탕’으로 몸보신 어때요?

오늘 소개할 곳은 30년째 장사하고 있는 '다사논메기매운탕'이다.

메뉴는 매기매운탕, 빼가사리 매운탕, 매기찜, 잉어찜, 한방백숙이 있지만, 대표 메뉴는 '매기매운탕'이다.

주문하면 기본 찬들이 나오는데 메인메뉴가 나오기 전까지 배부르면 안 되니까 아껴먹어야 한다. 기본 반찬은 무한 리필 가능하며, 사장님께서 눈치 주지 않고 친절하게 가져다 주신다.

매운탕이 나오면 따뜻한 밥에 단백질 가득한 생선 살이랑 채소들을 올려서 먹으면 밥 두 공기는 가능하다.

메기에 함유된 단백질은 피부와



뼈를 강화해 주고 매운맛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해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다.

매기매운탕은 맛만 좋은 게 아니

라 다양한 효능까지 있어 여름 몸보신으로 좋은 거 같다.

차가 없으신 분들은 지하철 타고 2호선 문양역에 내려서 다사 논메기

우리 동네 핫플

이 가게 어때?

매운탕 봉고차를 타고 가게로 가면 된다.

*영업 시간 매일 10시~21시

박신영 객원기자